







#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일대기

### '기적의 시작' 제주살롬호텔서 무료 상영, 엔딩 후 눈물바다

##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와 제주도 기독교교단협의회 악법대응본부 제주본부장 김건수 목사는 나제모(나라와 제주를 위한 기도모임)가 주관하고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제주지회의 후원으로 지난 1월 18일(목) 오후 2시 제주시 살롬호텔 17층 연회장에서 약 200여 명의 제주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기적의 시작'을 무료 상영했다.



이는 물론, 이승만과 직접 긴밀하게 큰일을 해왔던 백선엽 장군, 북한 노동당 비서를 지냈던 황장엽 선생, 여러 예비역 장성들, 각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 기록으로 작품의 객관성을 높였다. 특히 권 감독은 백선엽 장군의 희귀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친일파, 독재자로 알고 있는 이승만에 대해 정말 그러한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도 거친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권 감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취재해 모은 기록들을 모두 풀어놓았다. 백 장군에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질문도

많은 이들이 친일파, 독재자로 알고 있는 이승만에 대해 정말 그러한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도 거친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권 감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취재해 모은 기록들을 모두 풀어놓았다. 백 장군에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질문도

백 장군은 생전 여러 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하였는데, 고령의 나이로 본인이 써왔던 전투현장을 매체와 함께 직접 답사해 설명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권 감독은 특별한 기회를 얻어 백 장군의 전·후방 전투현장을 모두 함께 다니며 밀착취재를 할 수 있었다.

작품의 재연 장면을 위해 대배우 임동진 이 참여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 작품은 원래 2023년 상반기에 제작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로 참여한 배우 임동진 목사와 증강된 촬영 스케일로 완성도가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연설,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 하와이에서 외롭게 말년을 보낸 장면 등이 대배우의 열연과 어우러져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힌다.

작품은 몇 차례 가진 시사회를 통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임을 검증받았다. 대부분의 관객들은 처음부터 영화가 끝나는 순간까지 조집중에서 보았고, 특히 영화 후반부 갈수록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았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에는 아예 눈물바다가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 내

#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목회 다짐

## 강원지방회

강원지방회(회장 엄기소 목사)는 지난 1월 9일(화) 오전 11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진부제일교회(담임 이성은 목사)에서 신년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교단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성백달 목사의 사회로 권유타 목사의 대표기도, 김순기 목사의 성경봉독, 박순용 목사의 찬양 17:23-33 말씀을 본문으로 한 '24년의 어떤 기간차를 가져야 하나'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이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라며 "양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양떼는 떠나가게 됨을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오직 목회일에 집중해야 한다. 또, 다윗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의지하여 몰매를 던지듯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정을 갖고 일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준 목사의 헌금기도 후 1. 나라

의 안정과 위정자를 위하여 2. 지방회 모든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 마지막 때 교역자들의 사명안수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창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길을 깨닫는 목회자

##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이문근 목사)는 지난 1월 15일(월) 후영순복음교회(담임 김경준 목사)에서 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최은성 목사(승리하는교회)의 사회, 조숙희 목사(순복음주공예교회)의 대표기도, 김경준 목사의 설교, 이동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존재적 반뇌-영생과 열망'(요 3:1-16)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젊은 시절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는 말씀을 들으며,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대해 고민하다 허무에 빠져 살았던 과거를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안에 영생의 길을 깨닫고 목회자의 길에서 지금 참된 행복을 깨달았다."



지방회 목회자들도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목회로 달려가자"고 당부했다. 2부 월례회의는 지방회장이 이문근 목사의 사회로 2명의 전도사 임명식을 갖고, 각종 보고사항을 유인물로 받고, 올해 4월 22일부터

12월 일정으로 가게 될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를 다시 한 번 점검했다. 끝으로 지방회 환우 목사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함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후영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가진 뒤에 헤어졌다.

# 2024 신년하례회로 은혜로운 새 출발 다짐

##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윤득주 목사)는 지난 1월 9일(화)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북구 음담길 1에 위치한 옥토교회(담임 윤득주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경덕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김은수 목사의 대표기도, 인도자의 성경봉독, 사모회 특송, 부산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롬 8: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자유와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 회계 황용식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전임지방회장 권정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이어진 2부 월례회를 통해 지



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신년하례회를 마친 후 교제의 시간을 갖고, 2024년 새소망

으로 출발할 것을 다짐하며 회원들은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월례회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 처리

##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문찬우 목사)는 지난 1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에 위치한 예수사랑교회(예정희 목사 시무)에서 1월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육준수 목사(향기로운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예정희 목사(예수사랑교회)의 대표기도, 문찬우 목사(여호수아교회)의 설교, 전한배 목사(서광중앙교회)의 헌금기도, 강인덕 목사(순복음분향교회)의 축도, 김장수 목사(예순교회)의 폐회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에서는 회원점명 후 총무보고와 회계보고, 재무보고 등을 하고 안건토의를 통해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대로 되길

##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1월 16일(화) 순복음찬양교회(담임 김효신 목사)에서 신년하례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진태 목사(선한말미교회)의 찬송 인도에 이어 지방회 총무 김진현 목사(비전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의 대표기도, 부회장 서성영 목사(복된교회)의 성경봉독, 조정훈 목사 부부와 사모 중창단의 특송, 지방회 부회장 서경은 목사(순세운동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마4:1-8 말씀을 본문으로 '빵이나 꿀이나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빵(거짓과 헛된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세상 사랑은 복권을 사서 당첨만 되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고 빵을 찾는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당첨이 되든 안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 하

며 선한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했다. 형들은 어디서 빵을 치나 호통했지만, 훗날 형제들은 요셉의 말대로 그 앞에서 절을 했다. 마귀는 믿음을 빼앗아 간다. 그러나 좋은 땅 믿음의 땅에 심겨진 씨앗은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들을 구원 하라고 말씀의 씨앗을 주셨다. 이 귀한 생명의 씨앗을 믿음으로 옥토 밭에 잘 심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들이 되자"고 당부

# 새 마음과 자세로 사역에 임할 것 당부

##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1월 15일(월) 순복음동방빛교회(담임 이미경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 이미경 목사의 찬양 인도와, 총무 이평우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사회, 성경봉독, 표한자 목사(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벚꽃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계 21:1-6 말씀을 본문으로 '새로운 세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새로운 해를 주심으로 감사하며 처음 신학고 들어가기 이전의 다짐을 생각해 구태의연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버리고 새 마음과 자세로 사역에 임할 것"을 격려했다. 또 "잘 된 것은 보존하고 잘못 된 것은 과



감하게 버리자. 생각도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워져야 된다. 옛것을 돌려보내고 옛것에서 자유로워져야 새롭게 될 수 있다"며 "새 해와 새 땅을 향해 달려 나가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 새해에는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 개교회

와 교역자를 위해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김남순 목사(열문산교회)의 헌금 기도와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안건 토의를 한 후 오늘 이로 즐거움을 나누었고 순복음동방빛교회에서 삼근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 세계 평화를 위해, 전쟁종식을 위해, 민족복음화 위해 기도

## “2024년 제1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 (사단법인)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는 1월 15일(월) 7시 충남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택민교회(이정팔 목사)에서 2024년 제1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제1부 예배는 홍석용 목사(상임회장, 인주사랑교회)의 사회, 박차영 목사(지도위원)의 대표기도, 이정팔 목사(상임회장, 택민교회)의 설교, 김이레 목사의 헌금기도, 진등용 목사(대표고문)의 축도로 이어졌다. 이날 말씀을 전한 택민교회 이정팔 목사

는 막 1:38-45 말씀을 본문으로 '전도하러나 전도하시고 나오오더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실천되도록 그리하여 다시 아산시와 민족의 전도 열기를 일으켜 영혼을 살리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2부 조찬기도회는 회장 김병완 목사의 환영인사, 이명수 국회의원의 국정보고, 아산시청 직장선교회 김은경 회장의 아산시청 직장선교회 소개와 기도로 이어졌다.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김병완 대표회장은 "아산경찰서 직장선교회 윤신자 회장이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에서도 믿음을 드러

내지 않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복음을 드러내고 빛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늘 깨어 기도하시는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국회는 지금 총선체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더욱이 중동으로 전쟁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기에 전쟁으로 인한 유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다.

아산시청 직장선교회 김은경 회장은 코로나 기간에 신우회가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매월 30명에서 50여 명까지 모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회원은 108명, 밴드가입은 43명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작년 부활절에 가톨릭 순교회와 함께 절반씩 부담하면서 계



란나눔을 시침 전직원에 나눠줬다고 말하고 '회원들의 믿음성장', '직장선교회 활성화', '아픈 직원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이어서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새남산교회 윤봉환 목사, '나라의 안정과 발전 및 국가지도자들을 위해' 새민교회 최

순식 목사, '아산시 발전과 지도자들과 420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 비전중앙처처 흥은식 목사, '경찰복음화를 위해' 경찰인재개발원 교회 조창훈 목사, 기독교포럼대표 김원진 목사(이내중앙교회), CBS이사장 박노섭 목사(삼광교회), 유기준 전 아산시의원과 함께 주재별 합심기도를 했으며 기념촬영 후 기도회를

마쳤다. 회원들은 택민교회 이정팔 목사와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며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2024년 제2차 조찬기도회는 2월 19일(월) 오전 7시 경찰인재개발원교회(조창훈 목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조찬기도회 모든 일정을 마쳤다.

# 이왕재 박사 초청 '안식(침)의 참 의미' 주제 특강

##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 인천지방회 확립순복음교회 특강 개최



이왕재 박사



정진균 목사

교단 총무이며 인천지방회 전임회장인 정진균 목사는 지난 1월 21일(주일) 오후 4시 확립순복음교회(담임 정진균 목사, 부목사 손준희 목사)에서 이왕재 박사를 강사로 초청 '안식(침)의 참 의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에 대해 살펴 보았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내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성경의 가르침과 유익에 대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이 박사는 198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했다. 1990년에 서울의대 해부학교실 전임 강사로 부임하여 조교수, 사가고의대 교원, 부교수를 거쳐 2002년 정교수가 되었으며 2020년 8월에 정년 퇴임을 했다.

재직 기간 동안에 서울대학교 교무부처장, 기초교육원 원장, 서울의대 연구부처장, 서울대 의학연구원 부원장, 대한면역학회 회장, 대한해부학회 이사장,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보건복지부 보건연구 R&D 전략기획단장,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기독교사회 회장, 서울대학교병원교회 기독교 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교

회 운영위원장, 허브교회 장로, 월간 '건강과 생명'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면역학자로서 30년이 넘는 세월 중 비타민C 연구의 외길을 25년 가까이 걸어오며, 전공분야 세계 최고의 업적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잡지에 비타민C 관련 논문을 40여 편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대에 면역학 실험실을 운영하며 비타민C 연구와 후배 의학자 양성에 매진한 결과, 그 공로로 2004년 7월에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에 등재된데 이어 2004년 12월에는, 세계 3대 인명센터 중 하나인 영국 IBC 국제인명센터(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로부터 '2005년 올해의 의학자' (International Health Professional of the Year for 2005)로 선정되었다.

이 박사는 30여 년 동안 암의 면역요법과 비타민C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암이 발생하기 이전에 암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신념을 전파해 왔다. 이 박사는 비타민C와 면역요법을 통해 비교적 건강한 면역병사를 더욱 강하게 도와줘서 암 변이를 막고 암 유전자들 퇴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비타민C의 유익함에 대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각종 질병과 장기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성분이 다양 함으로써 있으며 다양한 활성산소가 발생했을 때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항산화 작용인데 비타민C가 바로 대표적인 항산화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명의 차이는 활성산소의 차이라고 전하고



활성산소를 낮추고 비타민C가 노화까지 늦춰주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면역관리와 면역 세포에 있어서 비타민C의 중요성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암세포를 자라나게 하는 암세포 면역 세포를 피하는 면역 회피를 억제하여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했다.

이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첫 아침에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제 7일에 안식하시니 내용을 첫 머리에 담고 있는데 이는 일주일의 기간 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간 개념임을 알려 주시려는 것이며 곧 달력의 일주일 개념의 원조가 바로 성경임을 알려 주고 계신다. 단순히 알려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보여 주셔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꼭 쉬되 안식 하라 하심의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굳이 쉼이 필요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쉼을 강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따라 하라는 명령임을 인지할 수 있다. 그만큼 쉼이 중요하고 그 쉼이 단순한 쉼이 아니고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안식은 교감신경계의 지배에서 벗어나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에 적절히 조화된 상태인 평안의 상태(안식)를 누릴 수 있다. 교감신경의 극도의 유세 속에 잠재적 고혈압과 잠재적 당뇨병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부교감신경 지배는 건강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강조했다.

인천지방회 확립순복음교회 정진균 목사는 지난해 '거룩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승만'이란 주제로 특강시간을 연이어 가진 것을 비롯 23년 7월 16일에는 전 국

정원장 김승규 장로를 초청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와 교회의 할 일'을 주제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점검했으며(목양신문 1229호 5면) 인천지방회와 함께 한국교회의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교회에 침투해 오는 이단사이비의 대처를 위해 2021년 6월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를 강사로 세미나(목양신문 1175호 3면)를 갖고 11월에는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기존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온갖 사회악법들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할지 감지연 약사(영남신학대학교 특임교수)를 강사로 세미나(목양신문 1186호 3면), 한국교회에 침투해오는 이단사이비와 전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데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페닐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임의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배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 주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찧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인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 가나 취약계층 여성 위한 직업훈련

## 기아대책-한국국제협력단, '경제 자립 역량' 마련 빈곤 끊는다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가나 북부 봉고(BONGO)지역 내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지난 1월 17일(수)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아대책과 KOICA가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함께 진행하는 '가나 취약계층 여성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직업훈련센터는 지난해 3월 가나 북부 봉고에 위치한 보코(Boko), 발룬고(Balungo), 조코(Zoko) 총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착공했으며 총 14억 5천만 원의 사업비용이 투입된다.

세 곳에서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는 직업훈련센터는 직업별 요구 역량에 따라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현지 취약 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아대책은 취약 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가나 북부 봉고 지역 특산품인 '스모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직조 및 봉제 기술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직업훈련 교재 개발에 나선다.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아동 돌봄 교실도 운영해 직업 훈련에 참여한 여성들이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기아대책은 제품 생산 이후의 단계에서도 여성들이 실제 수익을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문해 교육, 저축 그룹 활성화, 판매 시장 개척 등을 도와 현지 주민의 역량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합동선목, 신년감사 및 하례회

## 믿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해로 삼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선목)총회(총회장 김국경 목사)는 지난 1월 4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소재 목양교회에서 신년 감사예배 및 동역자 하례회를 갖고 급변 한해를 믿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해로 삼아 교단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부총회장 김대환 목사의 사회로 회의록서기 조영희 목사의 대표기도, 정인숙 목사의 성경 봉독, 선목찬양대(지휘 김태희 목사)의 찬양, 총회장 김국경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국경 목사는 요 21:15-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명적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목회자의 최대 사명은 영혼구원이다. 주의 종으로서 믿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회복을 위해 힘쓰고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

권·인권·건강 등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 박찬봉 목사의 헌금기도, 실로암교회 이순금 목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서기 박진우 목사의 '총회 발전을 위해', 부총회장 이명래 목사의 '총회신학교를 위해' 특별기도 후 부총회장 유영자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하례회는 총무 류인각 목사의 사회로 염소망 목사의 개회기도, 총회임원·실행위원·노회장들의 신년 인사 후 교단원로이자 대한노인회 회장인 김호일 목사·증경총회장 류지수 목사가 신년 축하인사(떡담)를 건넸다.

하례회는 회의록서기 안명모 목사의 폐회기도와 서울노회장 박효순 목사의 식사기도 후 교단발전을 위한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 복음의 꽃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시편 116편 12절).  
예수 생명이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로다.  
주께서 이곳에 생명의 호흡을 주셨네.  
너희가 내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오늘 여기에 복음의 꽃 피웠네.  
복음은 예수그리스도의 피 값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대 몸이시여,  
어찌 그리 아름답나니요.

이곳에 오느니여 그대에게 평화 있오라.  
이곳에 머무느니여 그대에게 평안이 있오라.  
이곳에 나서는 이들이여 그대에게 복 있오라.

교회여 생명이여 사랑 이시기에  
내가 이곳 갈릴리 호수삼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니 내안양을 먹이라.  
오늘도 세계선교 복음화를 외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가슴 울리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외치는 복음의 소리는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예수 사랑 내가 이곳 펼고다 언덕삼아  
너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렸네.  
너를 위해 여기에 복음의 꽃을 피웠네.  
복음은 용서가 움트고 화해가 이루어지네.  
회복의 꽃이 피는곳 복음은 평화! 평화!일세.  
놀라운 천국잔치 복음의 대역사로  
사랑의 꽃, 용서의 꽃, 복음의 꽃, 화해의 꽃,  
활 할 타오르네.  
활 할 타오르네.

가족세트전도 총괄본부장 이수 교수



#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신년 감사예배 드려

##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자” 다짐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대표회장 김원식 목사)이 하 한원목회는 지난 1월 15일(월) 오후 3시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2024년 신년 하례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원목 사무총장 김시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회계 홍혁기 목사의 기도, 김시준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김원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시 118:25-2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충성의 씨를 뿌리며 씨를 뿌리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원목 동역자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어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예배는 계속해 예정고신연합 회계 이명희 목사의 헌금기도에 이어 한원목 감사 이대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원목회는 이날 하례예배에 이어 오찬 및 간담회를 갖고 한원목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 20년 이상 기독교 박해국가 1위 유지 북한

## 북한의 기독교인들에 가해진 압박 가장 높은 정도 기록

20년 이상 기독교 박해국가 1위를 유지했던 북한은 2024년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해 탈북자 수백 명을 강제 복송했다.

기독교인 삶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에 가해진 압박은 가장 높은 정도를 기록하고, 폭력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점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이하 오픈도어)가 17일(수) 선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WWL, 이하 '월드 와치 리스트')를 공개했다.

'월드 와치 리스트'의 각 국가별 박해지수는 일반

적으로 폭력과 압박의 정도를 조사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삶의 5가지 영역(개인, 가정, 공동체, 국가, 교회)에서 느끼는 압박의 정도를 수치화한다.

조사에는 해당 국가 네트워크, 연구원, 외부 전문가 및 박해 분석가들이 참여하여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보 입력 기준을 체계화해 국가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연구방법론을 발전시켰다.

매년 4천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는 국제종교자유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뢰해 감사를

받음으로 신뢰성을 확보했다. 연구된 자료는 국가별 순위 목록, 국가별 자료, 홍보자료 등으로 출판되고 있다.

2024년 발표된 월드 와치 리스트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150개국 총 박해점수가 52점(1.4%) 상승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더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해점수가 2점 이상 악화된 국가는 리비아, 수단, 말리, 알제리, 이라크, 부르키나파소, 라오스, 쿠바, 모로코, 니제르, 오만, 에티오피아인 반면, 2점 이상 호전된 나라는 콜롬비아, 튀르키예, 쿠웨이트, 베네수엘라에 그쳤다.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2024 전국 청년 동계연합수련회

주제 : “하나님 뒀을 알지어다”  
Let God Be God(시 46:10)

\* 일 시 : 2024년 2월 16일(금) - 17일(토)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1층 소성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 등록비 : 1인 30,000원

\* 사전 신청 필수

\* 등록비 및 후원금 계좌 302 0560 9540 41  
농협 임형순

연합수련회 일정표		
시 간	16일(금)	17일(토)
07		가상 및 초석
08		경리 및 숙소, 성전 청소
09		특강 및 폐회 I
10		
11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휴식</p> <p>개회 예배 사회 : 오세준 목사 기도 : 각 교회 청년부 회장 중 성경 : 총회장 김병욱 목사</p> <p>특별기도 (미아스브레가링) 선언 고대운 목사</p> <p>축식</p> <p>찬양 콘서트 (김도현 복음성가 가수)</p> <p>계백서사 및 휴식 (조병로 성사 권별)</p> <p>조별 모임 (담당 : 주강욱 목사)</p> <p>휴식</p> <p>저녁 집회 경매와 찬양 : 대림 변영교교회</p> <p>휴식</p> </div>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주 최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년국

국장 오세준 목사 010-5041-3411 · 총무 배윤호 목사 010-7331-4565

마음으로 새겨진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아름다운 발자취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숫자도 '4'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병원 건물에 보면 층수를 표시할 때 3층 다음에 5층입니다. 4층을 빼고 5층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아니면 영어로 F층이라고 표시합니다.
대부호 알프레드 노벨(Alfred Nobel)은 프랑스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텔에서 신문기사를 보는데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 중에 "죽음의 사업가, 인류의 파괴자가 죽다"가 눈에 띄었습니다. 노벨이 죽었다는 기사인데 물론 오보입니다. 혐의 죽음을 기자가 잘못 알고 올린 것입니다. 더구나 사망기사 내용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대하면서 알프레드 노벨은 혐의 죽음 소식보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깊은 생각이 빠졌습니다.
"내가 만일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나를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살상하는 데 기여했던 인물로 평

가지 않을까?"
그는 자신의 발명품이 살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 늘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부호는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자. 평화를 만드는 일에 수고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하자.'
노벨상은 이렇게 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을 순수하게 합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잘 사는 것이 축복이듯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시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이다" (전 7:1-2)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의교회 권사

깨달음 2

어느 날

주님은 내게 물으셨다.
네 마음 내게 주지 않으려나?
네 생각 내게 주지 않으려나?

생각해보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었다.

그렇지...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내 인생의 운전을 주님께 맡겼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나의 위치를 확신하게 하신다.



뭔가 깨우치지 않은 날들을 지난 때
내 마음을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다.

사설

네 눈 속 들보부터 빼라

여론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천차만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이에게 '엄마, 아빠 중 누가 좋아?' 라고 물을 때와 '엄마가 좋아 아니면 매일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 잠만 자는 아빠가 좋아?' 라고 물으면? 결과가 같을 수 없는 일이다.
결론 전 때 이라크에 대한 핵무기 공격 찬반을 놓고 미 여론이 들끓었다. CNN에서 핵무기 찬반을 물었더니 50%가, 갤럽 조사에서는 71%가 찬성을 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CNN에서는 단순히 찬반만을 물었고, 갤럽은 '미국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써야 하나' 라고 물었다. 질문 방식이나 단어 선택에 따라서 수치는 춤추는 것이다. 2002년 KBS가 메인뉴스에서 정부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했다가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야당에 대해서는 자기방식 없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 보수 야당이라고 전제한 뒤 질문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 실정이라고만 질문한 것이다. 의도가 뻔한 질문을 한 것이다.
중앙선거위가 등록된 88개 여론조사 회사 중 34%에 해당하는 30개 업체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여심위) 등록 여건은 '본

석 전문 인력 3명 이상, 상근 직원 5명 이상,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으로 올라자 등록 업체중 3분의 1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전화자동응답조사(ARS)만 운영하는 업체가 19개, 전화 면접조사만 하거나 병행하는 업체는 11개다. 하나같이 전문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업체들이 그동안 여론조사를 해온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치와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40%밖에 되지 않았다.
많은 업체들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문을 구성하고, 민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도록 편향적인 표본을 추출했다는 뜻이다. 30개 업체를 퇴출시킨다니 늦었지만 꼭 다행스런 일이다. 언제나 이런 무지막지한 가짜가 퇴출될지,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러면 현란할 정도로 가짜가 판을 친텐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눅 6:42)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추모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4월부터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에 퇴임할 때까지 한국의 운명이 바뀔 만큼 중요한 때, 우리나라를 철저히 지켜주었던 최고의 은인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6월 당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미군 파병을 결정했다. 그의 대담한 결정은 한국에서 공산주의 약당들의 기습을 격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한국에게 큰 은인이며, 한국을 위기에서 살린 대부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한국인들은 그의 업적을 대부분 잊고 있지 않은가?
이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이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에 세워져 있다. 이는 외국 원수로서 유일하다. 그만큼 한국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그분의 서거일인 12월 27일 민간 주도의 추모식이 열린다. 2023년에는 51주기를 맞았는데, 사단법인 한미친선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사회문화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후원하여 열렸다.
이날 행사는,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25번지 관광단

지 안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 동상이 있는 곳에서 열렸다. 그 순서를 보면, 참가자들의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한·미 양국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 연주, 대석교회 이역주 목사(한국교회연론회 대표)의 추모기도, (사)한미친선연합회 홍사광 회장의 인사말, 주한미군대사 필립 골드버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 (사)한미친선연합회 운영위원장 김영진 박사의 추모사가 각각 있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헌화와 오네시모선교회 박상구 목사의 마침기도가 있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를 물리치는데 앞장섰으며,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데 앞장섰던 분이다. 이렇듯 국가적 은인에 대한 추모식을 이제는 민간 주도뿐만 아니라, 국가적, 보훈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최전방 지역 에다 돌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 뜻을 기릴 수 있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 고문: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배성환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02)2677-9937
광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2024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입생 모집
1. 지원자격
2. 제출서류(각 1통)
3. 전형안내
4. 접수방법
5. 특전 및 기타사항
6. 입학상담 및 문의

2024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2. 전형 방법
3. 전형일정
4. 전형료
5. 제출서류
6. 특전 및 기타사항